| 국군재정관리단과 함께 알아보는 **경제상식** |

<상> 2015년 연말정산 되짚어보기

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?

연말정산이 '13월의 보너스'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.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다. '세금 폭탄'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는 기간에 늘 생각하는 게 있다. 어차피 돈을 써야 한다면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을 쓰거나 금융상품을 선택할 걸 하는 후회가 바로 그것이다. 그런 만큼 연말에 후회하기보다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. 특히 1%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는 '미리 준비한 사람만 누릴 수 있지만' 또 '준비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' 수익률 높은 재테크이기 때문이다. 국군재정관리단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2회에 걸쳐 안내한다.

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

구 분	2014년	2015년	비 고
환급액	702억 원	913억 원	211억 원↑
추징액	207억 원	220억 원	13억 원↑
순환급액	495억 원	693억 원	198억 원↑

2015년 연말정산 결과 환급자 16만여 명은 1인당 평균 5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으며, 이에 반해 약 4만8000명의 추징 인원은 45만8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. '13월의 보너스'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어떤 이에게는 '세금 폭탄'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.

주로 공제받은 항목은?

① 신용카드 등 90% ② 기본공제 52% ③ 교육비 35% ④ 종교기부금 29% ⑤ 의료비 26% ⑥ 표준세액공제 25% ⑦ 기타(주택청약 12%, 연금저축 10%)

추징액이 증가한 이유는?

- 과세소득의 증가

기본호봉 증가 및 그에 따른 각종 수당 증가는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추징액의 증가로 이어졌으며, 특히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된 직급보조비를 많이 받는 高 계급자의 경우 다소의 추징액 증가가 발생하였다.

환급액이 증가한 이유는?

① 소득세 산출방식 변경

2015년 7월 정근수당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2014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. 원천징수액이 증가한 만큼 기존의 소액 추징자들(20만 원 이하)이 대거 환급대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.

② 개인의 관심 증대 및 계획적인 준비

연말정산을 또 다른 재테크의 하나로 인식하고 준비한 결과가 서서히 효과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.

2015년도 연말정산 중 누락했다면

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. 이때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하여 누락된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. 또한 2014년 이전 소득세에 대하여도 추가로 환급받을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'경정청구'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(5년까지 소급적용).

더 쉽게! 쉽게! 연말정산 관련 기본용어

-**총급여액**: 소득세 부과 대상 급여(급여총액 - 비과세소득)

-**근로소득공제**: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차감해주는 서비스성 공제

아래 표에 따라 산출해보면 高 소득자로 옮겨갈수록 근로소득공제는 비례적으로 커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☞소득세의 기본→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.

급여와 근로소득공제 비율

총급여액	근로소득공제
500만 원 이하	총급여액의 70/100
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	350만 원+500만 원 초과금액의 40%
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	750만 원+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%
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	1200만 원+4500만 원 초과금액의 5%
1억 원 초과	1475만 원+1억 원 초과금액의 2%

-**소득공제**: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절감시켜주는 것

*실제 절감액: 소득공제×세율

-**세액공제**: 산출된 소득세액 자체를 절감시켜주는 것= 실제 절감액

*소득공제 vs 세액공제: 세액공제가 더 유리

-'소득이 없다'의 기준: 근로소득 500만 원, 기타소득 333만 원 이하

▌편집=김주연 기자

'16-1차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심사 안내

응시분야 무기체계, 정보체계

응시자격 (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)

○ 응시일자로부터 5년 이내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사업관리 기본과정(무기체계,정보체계) 이수자
○ 응시일자로부터 5년이내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중 무기체계전공, 정보체계전공, 국방관리 전공, 국방운영분석전공으로 2학기 이상 이수하였거나 국방사업관리전공(야간), 국방자원관리전공(야간)으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

시험일시 및 장소 2016. 5. 14(토) 09:30 ~ 11:10 / 국방대학교(직무교육원)

제출 서류(별도 전자우편 스캔파일 접수)

○ 직무교육원 사업관리 기본과정(무기체계, 정보체계) 이수자 : 정보활용동의서 1부
- 응시원서 작성시 교육 이수 경력란에 사업관리 기본과정 이수내역을 정확히 기재
○ 석사과정 전공자: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, 정보활용동의서 1부
(주간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, 야간 석사과정 4학기 이상 이수)
○ PMP, IT-PMP(S) 자격증 소지자 : 자격증(면제과목 확인용) 1부
※ 전자우편 주소 : 국방이메일 charyung@mnd.mil (현역/군무원/공무원)
인터넷이메일 pcl@kndu.ac.kr (일반인)

응시원서 접수

○ 기 간 : 2016. 4. 20(수) ~ 4. 29(금)
○ 응시원서(온라인 접수)
- 인트라넷(국방망) 접수를 원칙으로 함(http://www.kndu.mnd.mil)
- 인트라넷 접속이 불가한 일반인은 인터넷 접수(http://www.kndu.ac.kr)
○ 접수결과 공지 : 5. 11(수)(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공지사항)

합격자 발표 2016. 5. 20(금) /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홈페이지(인터넷 및 인트라넷)

기타 사항

○ 자세한 내용은 국방대학교 / 직무교육원 홈페이지 국방사업관리사 베너 「국방사업관리사 자격관리지침」 참고
○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공지사항 첨부 양식으로 제출
○ 문의전화 : 군 901-4113, 일반 (02)300-4113.

국방대학교